

기고

이정호 화순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여름철 화재예방, 이것부터 실천하자

여름철에는 습하고 비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잠자 계절적인 요인이 사라지고 여름철 화재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화재 총 44,178건 중 7~8월에 5,61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의 12.7% 차지하였고 인명피해는 268명, 재산피해 또한 675억원으로 집계되어 여름철 화재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무더운 여름철이 왜 화재에 취약해지고 있는 것일까?

폭염의 기세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어 냉방을 위한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리 부실 등이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대부분 모터과열이나 피복손상 실외기 주변의 담뱃통 등의 원인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여름철의 경우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계절적인 특성과 화기 사용에 대한 주의 이완으로 볼 수 있다. 여름철은 무더위로 인해 주의력이 산만해지기 쉽고 부주의해지기 쉬운 경향에 따른 것이다.

그럼, 여름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사항들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꽂아 사용하지 말고 콘센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한다. 문어발식배선으로 많은

전기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과전류로 인한 고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주위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 불꽃이 튀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한다.

두 번째, 냉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동을 정지시키고, 선풍기 모터에 쌓인 분진은 화재로 이어지므로 사용 전에 청소를 해주어야 하며, 에어컨은 피복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면 냉각 장애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삼가 한다.

세 번째, 여름휴가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시설 메인밸브, 중간밸브 차단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스용기는 바깥이 잘 통하고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외부의 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전기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스위치를 끄고

코드를 빼 놓는다.

네 번째, 가스 사용 전에는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고, 가스레인지를 장시간 사용 시(보양식 등)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고, 휴대용 가스 사용 시 넓은 프라이팬 또는 불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차량의 경우 차량내부 온도가 80℃ 까지 상승하므로 라이터 등을 차량 내 보관 하지 않으며, 또한 차안 흡연 시 창문을 열고 담배꽂이를 외부로 버릴 경우 뒷좌석으로 다시 들어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트렁크 내부도 반드시 확인하여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의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도 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화재는 추위나 무더위를 가리지 않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만든다.

이제는 여름철에도 화재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때이다. 일상생활에서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본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社說

軍 내 성폭력 뿌리 뽑아야

군 장성을 비롯한 간부들의 성폭행 논란으로 군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늦었지만 군의 미투운동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국방부는 최근 육군회관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성고충진문상담관 간담회를 열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는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상담관의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군 및 국직부대에 근무하는 성고충진문상담관을 대표해 11명의 상담관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보건복지관, 여성가족정책과장 등도 함께 했다.

송 장관은 "군 내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군이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토록 할 것"이라며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부대 차원의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피해를 입고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잘못된 문화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성고충진문상담관 제도와 신고체계의 효과적 운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하고 부대의 적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전문상담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사회의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민주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성고충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성폭력 관련 정책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甲 帳 對 楹

甲 帳 對 楹

뜻: 아름다운 갑정(甲楨)이 기둥을 대 하였으니, 동방삭(東方朔)이 갑정(甲楨)을 지어 임금이 잠시(暫時) 정지(停止)하는 곳 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양보가 생명을 구한다

무더위가 한창인 7월이다. 7월의 무더운 날씨 속 차량이 뺨뺨이 가득 찬 그런 정체된 도로위에서 운전할 때 간혹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주변차량에 길을 양보해달라는 방송을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그때 여러분은 대부분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길을 비켜주는가? 아니면 당황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만히 있는가?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는 대처 방법도 실상 현장에서 부딪히면 당황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생 각보다 쉬운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갈 때 차량을 우측 가장자리 등 적절

한 위치로 길을 양보해주거나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 소방차 등이 진행할수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길을 양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우선 통행하도록 양보해 줬을 뿐인데 그것이 생명을 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화재가 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육내진압이 곤란해진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은 곧 화재가 발생한 후 5분이 지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출동 시 길을 양보해 준다면 소방차가 신속하게 화재현장으로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신속하게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생명을 구할 확률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가량 높다고 한다. 여러분이 소방차에 양보하는 순간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했기에 생명을 구했다고도 볼 수 있다. 구급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통 심장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의 경우 4~6분이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심장정지 후 심폐소생술이 4분 이내 시행되지 않으면 뇌손상을 입게 되는데 생존가능성도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긴급출동중인 소방차

등에 대한 양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최근엔 6월 27일부터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차주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법령보다 좀 더 강화된 법으로 그만큼 소방차 길 터주는게 선택이 아닌 의무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기도 하는 사례이다. 이런 법적 강제력을 떠나서 화재현장 및 구급현장이 당신의 이웃 또는 당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양보 운전을 미덕으로 삼아야 한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영화 속의 대사가 현실세계에서도 적용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의 작은 양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충현 / 장흥119안전센터 소방교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 Includes logo for 'Korea's Happiness' and 'Korean People's Welfare Foundation'.